



KIA 금주의 프로야구



8~10일·광주

11~13일·인천

패조의 4연승으로 7월 첫째 주를 마감한 KIA 타이거즈(7월 현재 6위)가 이번 주 한화 이글스와 홈경기에 이어 SK 와이번스와 원정 3연전을 갖는다. 6개일차로 쫓고 있는 4위 한화와의 상대전적은 7승8패, 1위 독주중인 SK와는 1승9패로 열세지만 46경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KIA는 4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사자 추월' 설레이는 한 주

5위 삼성과 반게임 차...선수들 사기충천

지난 주 투·타의 맹공세로 5위 삼성을 반게임차까지 바짝 뒤쫓은 만큼 대혈투를 앞두고 있는 선수단의 기세는 등등하다.

지난 주 우리와 삼성을 상대로 4승 1패를 거둬 승률이 8할에 이른 데다 지난 5경기에서 0.310의 타율을

바탕으로 35득점을 기록하는 등 방망이가 불을 뿜었다. 최근 5경기에서 0.474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김중국과 0.348의 김선빈 등 하위 타선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었다.

하위 타선의 폭발력이 더해져 데타를 세터 이영규와 중심 타자 장성호도 최근 5경기 타율 0.370, 0.412의 맹타를 선보여 타선에 빈틈이 없어졌다.

마운드도 제자리를 찾았다. 지난 주 5명의 선발 중 이대진·이범석·데이비스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디아즈는 5이닝동안 3실점, KIA의 유일한 패전이었다던 윤석민도 6이닝 4실점으로 선발했다. 5명의 선발이 모두 제자리를 찾으면서 KIA의 사생결단 6연전에 힘이 실렸다.

6일 삼성과의 대구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6이닝동안 2피안타 4탈삼진 1실점으로 화려한 신고식을 치른 데이비스의 가세도 전군만다. 오랜만에 등장한 '거물 투수'는 첫 등판에서 가법계 151km를 찍으며 'KIA 광속구 군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마무리 한기주도 패투를 선보이며 컨디션 '이상무'를 선언했다. 지난달 말 있던 구원 실패로 자존심을 구겼던 한기주가 7월 3경기에서 6과 3분의 2이닝동안 3개의 안타만 내주며 실점없는 완벽한 피칭으로 2.56까지 치솟았던 평균자책점을 2.08까지 끌어내렸다.

집중력도 좋아졌다. 선취점을 뺏고도 점수를 지키지 못해 번번이 역전패를 당하던 KIA는 지난 5, 6일 1점차로 삼성을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특히 1승4패로 올 시즌 연장전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KIA는 6일 15회까지 가는 접전끝에 김주형의 결승타로 4연승을 매듭지었다.

두 가지 숙제가 남는다. 홈런 최하위 탈출과 중간 계투진 보강이다.

지난 주 차세대 거포 나지완과 김주형이 나란히 아치포를 그렸지만 팀 홈런은 31개로 여전히 최하위이다. 이번 주 맞불게 되는 한화(홈런 84개)와 SK( " 57)는 홈런 1·2위팀. 경기 흐름을 바꿀

Table with 7 columns: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Rows for SK, 두산, 롯데, 한화, 삼성, KIA, 우리, LG.



KIA 선수들이 지난 6일 삼성과의 대구 경기에서 15회 연장 혈투 끝에 4-3으로 4연승을 확정지은 뒤,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하다. 5, 6일 용병 디아즈 데이비스는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중간계투진의 난조로 승리를 눈앞에서 놓쳤다. 중간계투진의 활약에 따라 KIA의 4강행 명망이 엇갈릴 전망이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히딩크 "4강 기대 심리 버려라"

어제 방한...한국축구 소감 밝혀

"승리에 배가 고프다."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에서 러시아의 사상 첫 4강 진출을 이끌어낸 거스 히딩크(62)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제2호 히딩크 드림필드' 준공식 참석을 위해 1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검은색 상의에 흰색 티셔츠를 어깨에 두른 히딩크 감독은 7일 오후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룬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 나온 뒤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하다. 이렇게 큰 환대를 기대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승리에 배가 고프다.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9일 포항시 남구리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드림필드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애인 엘리자베스와 한국을 찾은 히딩크 감독은 "한국에서 휴가도 즐기고 우리 재단을 도와주고 있는 스폰서들과 만남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대표팀을 유로 2008 4강에 올린 비결에 대해 그는 "6년 전 한국을 맡았을 때와 비슷하다"고 운을 뗀 뒤 "젊고 새로운 선수들을 데리고 시작했다. 한국을 이끌 때처럼 열심히 뛰었고 선수들을 믿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히딩크 감독은 최근 한국 축구가 부진에 빠진 상황에 대해선 "2002년 4강에 오른 이후 팬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후임 감독들이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2002년과 비슷한 성적을 내야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감독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2002년 때의 성적을 재현하는 것은 물론 세계 4강의 실력을 유지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히딩크 감독이 공항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의 요구에 따라 억살스럽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스포츠조선 제공>



코리아 빅리거 플로리다전 선발 출격



박찬호 11일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투수 박찬호(35·LA 다저스)와 백차승(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플로리다 말린스를 상대로 잇따라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7일(이하 한국시간) 메이저리그 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백차승과 박찬호는 각각 10일과 11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와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플로리다와 홈경기 선발 등판이 예고됐다.

이는 샌디에이고에 이어 다저스와 맞붙는 플로리다의 원정 6연전 일정과 두 투수



백차승 10일

의 선발 로테이션이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플로리다는 이를 연속으로 한국인 선발 투수와 상대를 해야 하는 셈이다.

백차승의 상대 투수로는 올해 4승4패 평균자책점 3.96을 기록하고 있는 좌완 스카틀렌이 예정돼 있고 박찬호와 경기에서는 2승3패와 평균자책점 8.38의 성적을 거둔 라이언 터커가 등판한다.

플로리다는 타율은 0.258로 메이저리그 전체 29개 팀 가운데 20위로 처져 있는 반면 팀 홈런에서는 126개로 전체 1위에 올라 있어 만만치 않은 타선은 아니다.

축구협 기술위원장

이희택 부회장 선임



이희택(62·사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위기의 한국 축구를 구할 '소방수'로 낙점됐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이희택 기술 담당 부회장을 신임 기술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희택 신임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의 수장을 맡아 당장 눈앞에 닥친 2008 베이징을 앞두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치러야 한다.



8일(화) ▲2008 프로야구 (한화: KIA)(18 : 20·MBC ESP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model houses and various propertie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won Land, offering various types of land and building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eon Dan Il Gae Gong In Jung Gae Sa, specializing in land and building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eomwon Gyeongmae Jeonmun, providing detailed listings of propertie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eomwon Gyeongmae Jeonmun Hoesha, offer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ukmin Gong In Jung Gae Sa, featuring a wide range of property listings and services.